

『直指』와 금속활자 인쇄의 가치와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한 朝鮮初期 금속활자 간행도서의 주제 분석

Subject Analysis of Publications by Metal Movable Type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With a Focus on the Significance of 『Jikji(直指)』 and
Metal Movable Types

金聖洙(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론 | 6. 을유자 및 갑진자 간행도서의 분석 |
| 2. 계미자 간행도서의 분석 | 7. 조선시대 서적의 간행 및 유포 |
| 3. 경자자 간행도서의 분석 | 8. 결론 |
| 4. 갑인자 간행도서의 분석 | <參考文獻> |
| 5. 경오자 및 을해자 간행도서의 분석 | |

< 초 록 >

본 연구는 『直指』와 금속활자 인쇄의 가치와 중요성을 導出 하기 위한序說 로考究 된 것이다. 그 연구의 방법으로, 1) 조선 건국 후 초기 100년 동안의 금속활자 간행도서를 주제별로 분석하고, 2) 금속활자의 기능 및 조선 초기의 서적인쇄 정책 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조선 초기 금속활자 인쇄문화는, 1) 고려에서 조선으로 국가의 체제가 변화하는데 있어서, 儒家政治의 이념과 관련한 新知識의 정보를 신속하게 보급·확산시킴으로써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금속활자 인쇄도서는 조선 건국의 기틀(functioning) 및 국가적인 정보유통의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데 그 기능을 완수하여 함으로써 '500년 조선왕조'의 주춧돌과 기둥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糾明하였다. 2) 세종 이후의 금속활자 인쇄문화는 한글의 사용 용례를 啓導하고, 한글의 전파와 이를 사용하는 일반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民生의 고통 및 문명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 결국 『직지』에서 비롯되어 조선 초기에 발전된 금속활자 인쇄문화는 커뮤니케이션(정보유통)의 기반(infrastructure)을 구축함으로써, 조선이라는 국가를 주체성 있는 문화국가로 성장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要語: 直指, 金屬活字 印刷文化의 重要性, 新知識의 普及 및 擴散, 國家情報流通의 인프라 構築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 교수 (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04년 8월 16일 최초심사일: 2004년 9월 2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18일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s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Jikji(直指)', and printing by metal movable types(金屬活字 印刷) by analyzing publications by subject, functions and government policy of printing by metal movable types during the early Chosun(朝鮮) Dynasty. The following has been found:

1) Printing and distribution of books by metal movable types were very successfully used to help justify the foundation of Chosun Dynasty by disseminating new knowledge relating to Confucian ideology. Those books printed by metal movable types contributed to the building of a firm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formation flow as well as the legitimacy of the New Country.

2) Since King Sejong(世宗), printing by metal movable type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literacy among people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quality of life by illustrating and promoting the proper use of Hangul(한글) and therefore reducing inconvenience in using it.

In conclusion, printing by metal movable types flourished during Chosun Dynasty contributed much to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of communication, and the advancement of Chosun Dynasty as a nation with a unique cultural identity.

Keywords : Jikji(直指), printing by metal movable types(金屬活字 印刷), significance of 'Jikji(直指)', disseminating new knowledge relating to Confucian ideology, the building of a firm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formation flow.

1. 서 론

우리나라는 이미 7세기 前期에 現存하는 世界最古의 木板印刷圖書인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간행한 바 있고, 13세기초 즉 1232년 이전에 金屬活字로 「惲明泉和尚頌證道歌」를 간행한 바 있으며, 1234년부터 1241년 사이에 「詳定禮文」을 江華島에서 28부를 인쇄한 바 있고, 특히 現存하는 世界最初(世界最古)의 금속활자인쇄도서인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1377; 이하 「『직지』」라 약칭함)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MOW)'으로 등재됨으로써, 명실상부한 印刷文化強國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서양에서 「42행성서」가 발간된 이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인쇄술(1445)은 종교혁명과 산업혁명의 端初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천년 동안의 100대 사건 중 첫 번째의 最大의 사건으로 선정'¹⁾된 바 있다. 또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인쇄술은 유럽사회를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移行시켰다²⁾는 점에서 世界文化史 상 이미 그 굳건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직지』는 1972년부터 '現存하는 世界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도서'로 세계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지만, 1985년 『직지』의 刊行地인 興德寺址가 발굴된 후 비로소 그 중요성이 浮刻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9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근래에 와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지』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은 구텐베르크의 그것보다 아직 연구의 성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 있는 論理 또한 부족한 편이다.³⁾

1) 세계적인 언론인 <타임(Time)>사가 발행하는 「라이프(Life)」지는 지난 천년을 마감하며 지구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100대 사건'을 선정했다.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지난 천년 동안 세계 역사의 큰 줄기를 100대 사건 선정작업에는 세계의 석학 수백 명이 동원되었다. 그 세 번째 사건은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2위는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그리고 첫 번째 최대의 사건으로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성경(바이블)」을 인쇄한 사실이 선정되었다(남윤성 PD, 청주MBC 창사 3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 제1부 - 世界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청주: 청주MBC 특집제작부, 2000년 9월 22일 오후 9시 55분 방영(55분간)), 대본 p.2. 참조.)

2) 김민환, 「동아시아에서의 근대신문 지체요인」 (서울: 나남출판, 1999), pp.22-23.

『직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또 그 중요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혹여 『직지』가 현존하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도서라는 象徵性 및 安堵感에 빠져서, 『직지』와 금속활자 인쇄의 진정한 가치를 발굴해 내는데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하였거나 看過한 것은 없는가?

실제로, 1985년 『직지』를 간행한 흥덕사지의 발견 이래, 20여 년 동안 『직지』와 관련한 직지 얹은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정작 그간의 研究成果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하겠다. 그 중 『직지』와 금속활자 인쇄에 관한 가치의 규명 또는 발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논문은 「直指」의 印刷文化史的 意義를 비롯한 수편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⁴⁾ 또한 『직지』와 관련하여 深度 있는 特輯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여러 편 제작되었다.⁵⁾

- 3) 『직지』와 금속활자 인쇄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5년부터 淸州市 및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이 주최하여 3회 이상 개최된 『국제인쇄출판문화 학술회의』의 결과에 의한 연구성과가 있다.
- 4) ① 손보기, “韓國의 金屬活字印刷”, 『世界속의 韓國印刷出版文化 論文集』, 『第1回 國際印刷出版文化 學術會議』(淸州: 淸州市, 1995), pp.7-20.
- ② 천혜봉, “興德寺字本「直指心體」의 印刷文化史的 意義”, 『世界속의 韓國印刷出版文化 論文集』, 『第1回 國際印刷出版文化 學術會議』(淸州: 淸州市, 1995), pp.39-50.
- ③ 손보기,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 발명: 인류문화발전에서의 역할과 영향”,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청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996), pp.7-23.
- ④ 한영우, “한국 금속활자 인쇄발달의 사회역사적 배경”,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청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996), pp.51-59.
- ⑤ 천혜봉,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달과정”,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청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996), pp.63-86.
- ⑥ 윤병태, “금속활자 발명의 의의”, 『인쇄문화 국제포럼』(청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997), pp.95-107.
- ⑦ 박문열, “백운화상과 불조직지심체요절”, 『인쇄문화 국제포럼』(청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997), pp.119-145.
- ⑧ 이어령, “인쇄육망의 근원에 있는 것 - 인쇄문화의 東과 西 -”, 『제3회 청주국제인쇄출판학술회의』(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pp.1-14.
- ⑨ 천혜봉,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金屬活字 印刷術”, 『제3회 청주국제인쇄출판학술회의』(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pp.15-24.
- ⑩ 남권희,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研究의 成果와課題”, 『제3회 청주국제인쇄출판학술회의』(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pp.131-142. 그밖에 『직지』 관련 논문에서 문화사적 의의나 가치를 부분적으로 논술한 논문이 다수 있음.

위와 같은 여러 관련 자료들을 일괄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직지』와 조선 초기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완전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후속의 연구 및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1) 금속활자본 『直指』(興德寺本)의 주조방법에 관한 실험적 복원에 의한 재규명 및 목판인쇄본 『직지』(鷲巖寺本)와의 비교
- 2) 민간에서 주조된 금속활자의 주조(民間活字; 寺刹活字 포함)와 국가가 주도한 금속활자의 주조(官籌活字)와의 관계 및 연계성의 문제
- 3) 제미자·경자자 등에서 갑인자로 발전하는 단계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변화과정에 관한 주조 실험 및 복원에 근거한 朝鮮初期 금속활자인쇄술의 正體性 문제.

- 5) ① 남윤성 PD, “청주MBC 창사25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직지(直指)』”(1995. 10. 23. 오후 7:25~8:20, 방송). ○개요: 『직지』가 갖는 인류문화사적 가치 및 『직지』 인쇄 금속활자의 주조 과정 고증.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1996. 9. 한국방송협회) 수상.
- ② 남윤성 PD, “청주MBC <월요기획> 국보1호급 『직지』 국내에 있는가?”(1996. 12. 23. 오후 7:25~8:20. 방송). ○개요: 『직지』 원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
- ③ 남윤성 PD, “청주MBC 창사29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직지를 찾습니다>”, (1999. 10. 23. 오후 7:25~8:20. 방송). ○개요: 『직지』의 원본 찾기 운동의 동기, 전개 과정, 성과, 과제 등 취재, 특히 이 운동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계몽.
- ④ 남윤성 PD, “청주MBC 신년특별기획 생방송 <인류문화유산 직지를 찾습니다>”, (2000. 1. 7. 오후 21:55~23:05. 방송). ○개요: 『직지』의 문화적 의미 ‘『직지』 찾기 운동’에 대해 취재하며, 전 국민적 운동의 확산을 위한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
- ⑤ 남윤성 PD, “청주MBC 창사3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 ○제1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2000. 9. 22. 오후 9:55~10:50. 방송). ○제2부: 금속활자 발명국 한국인가, 중국인가(2000. 9. 29. 오후 9:55~10:50. 방송). ○제3부: 한국의 금속활자 세계로 가다(2000. 10. 6. 오후 9:55~10:50. 방송). ○개요 한국이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 사실을 철저한 문헌 고증과 과학적 실험을 통해 밝히고, 나아가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끼친 영향, 구텐베르크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명함.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2000. 12월, 방송위원회) 수상. ‘방송프로그램21상 대상’(2000. 12월, 한국방송진흥원) 수상.
- ⑥ 남윤성 PD, “청주MBC 창사33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류를 찾아서> 2부작”. ○제1부: “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인가?”, ○제2부: “활자로드는 없는가?”, (2003. 12. 26. 오후 9:55~00:05. 방송). ○개요 금속활자 인쇄술의 서양 전파 경로를 가칭 ‘활자로드TYPE ROAD’라 명명하고 그 존재 유무를 세계최초로 탐사하여 우리 금속활자 인쇄술의 세계사적 우수성을 적극 부각시키고, ‘활자로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함.

- 4) 조선 중앙정부의 금속활자 모본(母本) 인쇄에 의거한 지방 관아의 復刻本의 비교·분석.
- 5) 朝鮮前期의 금속활자와 일본(스루가 동활자 등) 및 중국의 금속활자와의 관계 및 영향.
- 6) 조선시대 금속활자를 비롯한 동양의 금속활자 인쇄술과 서양의 구텐베르크 인쇄술과의 비교·분석 및 영향 관계.
- 7) 朝鮮初期 금속활자 간행도서의 주제별 분석에 의한 금속활자 인쇄도서의 의미와 가치의 導出.
- 8) 신라·고려시대의 목판인쇄문화와 『직지』에서 비롯된 조선시대의 금속활자 인쇄문화가 상호 관련하여 총체적인 韓國印刷文化史 속에서 『직지』와 금속활자의 가치와 중요성의 규명 및 도출 등.

이상과 같은 8가지 이상의 일련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직지』와 금속활자 인쇄의 가치와 중요성”이 제대로 규명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위와 같은 일련의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위 일련의 연구에 대한 序說로서 『직지』와 금속활자의 가치와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한 첫 번째의 방법으로, 먼저 필자는 ‘朝鮮’이라는 國家의 體制가 構築·整備되는 期間이라 볼 수 있는 시기를 ‘건국초기의 100년’이라고 設定(假定)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朝鮮初期 100년 동안(1392-1492)에 주조된 여러 금속활자에 局限하여 이들 금속활자 간행도서에 대한 주제의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조선초기 금속활자 간행도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 및 중요성을 論究하고자 한다.

2. 癸未字 刊行圖書의 分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朝鮮은 그 건국(1392)과 함께 崇儒右文政策에 의하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儒生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한 관련 典籍들을 시급하게 간행·보급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에 처하였다.⁶⁾ 그리하여 太宗(1400-1418)은

태종 3년(1403; 癸未) 2월 19일에 銅活字의 주조를 명령하고, 수개월 만에 동활자 수십만 개를 鑄成 하였다.⁷⁾ 이것이 바로 癸未字이며, 經筵에 所藏되어 있던 南宋의 蜀本 「詩經」·「書經」·「春秋左氏傳」을 그 字本으로 하였다.⁸⁾

이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현재까지 전하는 記米자로 간행한 14種의 전적들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교 및 유학에 속하는 部類의 관련 전적은 「진서산독서기대학연의」(일련 번호 2)⁹⁾를 비롯한 4종(28.6%)이 있다. 이들 전적들을 소주제로 세분하여 보면 모두 이른바 四書五經류의 경서에 속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역사서는 「십칠사찬고금통요」를 비롯한 5종(35.7%)의 전적이 있다. 이들 역사류의 전적들을 소주제로 구분하여 보면 모두 中國史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그밖에 문학류에 속하는 전적이 2종(14.3%)(일련 9, 13), 법학류가 「속육전」 1종(일련 3), 지리류에 속하는 「지리전서 동림조담경」 1종(일련 14), 兵書류인 「승선적지록」 1종(일련 4)이 보인다.

위의 주제분류에 의하면, 記米자 간행도서 14종 중 ①역사류가 35.7%(5종), ②유교류는 28.6%(4종), ③문학류(14.3%), ④법학류(7%), ⑤지리류(7%), ⑥병서류(7%)의 전적으로 6개의 類로 구분할 수 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가?

6) 실제로 조선 건국의 벽두인 太祖 당시에 「開國功臣錄券」은 필사본으로 내려 주었으며, 「原從功臣錄券」은 그 일부가 木活字로 찍혀졌으며, 「大明律直解」(1395)는 書籍院에 납입된 목활자로 100부를 인쇄하였고, 조선 최초의 中央官刻本인 「經濟六典」은 木板本으로 인쇄되었다. 또한 조선 건국 초기 10년 동안 ‘왕자의 난’ 등 왕권을 둘러싼 투쟁으로 右文政策에 의한 인쇄사업이 어려워 목활자와 목판으로 충당하다가(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서울: 범우사, 1990), p.224.), 1403년(태종 3)에 와서야 금속활자 주조가 시도되었던 것이다.

7)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權近, “鑄字跋” 「陽村集」 卷22. 所在 참조 요.

8) <표 1>에서 보면, ①大字 專用印本: 7, (10, 11). ②大小字 並用印本: 1, 8, 12. ③小字 專用印本: 9, 13, 14가 보인다. 한편, “記米자의 주조는 大字 뿐이고 小字는 고려시대 書籍院에 전해온 활자를 그대로 계승하였다(천혜봉(2003), “癸未字와 그 印本”, 「古印刷文化」 제 10집, 94. 참조.)”는 주장도 있다.

9) 이하 ‘일련번호’를 ‘일련’이라 약술함.

〈표 1〉 癸未字(1403) 간행도서¹⁰⁾

	서명	간행년월	대주제	소주제	비고
1	十七史纂古今通要	太宗12년 (1412) 7월	역사	중국사 - 北史	서울대 규장각, 국립도서관 소장
2	眞西山讀書記大學衍義	태종12년5월	유교	경서 - 四書	
3	續六典	태종13년6월	법학	法典	태종 제정
4	乘船直指錄 ¹¹⁾	태종16년	군사	兵書	해군의 乘船 지침서로 추정
5	禮記淺見錄	태종16년	유교	경서 - 五經	태종18(1418) 濟州 翻刻本 有 숙종13(1687) 濟州 重刻本 有
6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 左傳句讀直解	太宗朝	유교	경서 - 춘추류	단종2(1454) 錦山 翻刻本 有
7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태종조)	역사	중국사 - 북사	潤松미술관, 誠庵古書博物館 소장
8	宋朝表旣總類 ¹²⁾	(태종조)	역사	중국사 - 奏議	湖巖美術館, 奎章閣 소장
9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태종조)	문학	중국 - 문집	성암고서박물관, 개인 소장
10	通鑑續編	(태종조)	역사	중국사	序文4張 大字(癸未字, 本文 小字(庚子字) 國庫283호; 孫成熏 소장
11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태종조)	역사	중국사	序文2張 大字(癸未字, 本文 小字(庚子字), 汎友社 소장
12	纂圖互註周禮	(태종조)	유교	경서 - 禮類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13	陶隱先生詩集	(태종조)	문학	詩	성암고서박물관, 故 金完慶 소장
14	地理全書 洞林照膽經 ¹³⁾	太宗朝	지리학	지리학	卷上下 1책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權近이 작성한 癸未字의 鑄字跋에 의거하면,

永樂元年(1403) 봄 2월에 왕이 신하에게 말하기를, “무릇 나라를 다스리려면 만드
시 널리 典籍을 보아야 한다. 그런 뒤에야 모든 이치를 추구(窮理) 하고 마음을 바
르게 하여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효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 조선은

10) 이 표를 비롯한 본 논문에서 제시된 모든 표의 내용은, 김두중의 「한국고인쇄기술사」(서울: 탐구당, 1980)를 모범으로 하고, 천혜봉(1990), 남권희(2000), 윤상기(2003) 등 관련 자료의 내용들을 수합하여 작성한 것임.

11) 「太宗實錄」, 태종6년(1416) 3월 27일條에, “승선직지록」 300부를 鑄字所에서 印刷하여 외방 各道에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해군의 乘船指針書로 보임.

12) 「송조표전총류」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천혜봉, 2003. “癸未字와 그 印本 - 宋朝表旣總類의 해설을 곁들여-” 「古印刷文化」 제10집(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3), 91-101.) 참조 요.

13) 「洞林照膽經」 등 9종은 陰陽科 初·覆試에서 講書로 채택된 것이다(「經國大典」卷3, 「禮典 諸科 陰陽科 初試覆試 講書條」 참조).

중국과 바다 건너(海外)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국서적을 쉽게 구할 수 없고 또 木板本(板刻本)은 훼손되기 쉬우며, 또한 천하의 많은 책을 모두 간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내(王; 太宗)가 銅活字를 鑄造하여, 서적을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인쇄하여 널리 傳播함으로써 진실로 무궁한 이익을 삼고자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백성들에게서 거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내가 宗親·勳臣 등 臣僚들 중에서 뜻있는 자와 같이 한다면, 그 성취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은 內帑金을 내놓고 李穡 등.... 여러 신하에게 이를 감독·官掌하게 하고, 經筵을 하던 古注가 수록되어 있는 「詩經」·「書經」·「左氏傳」으로 字本을 삼게 하였다. 그 달(2월) 19일에 주조하기 시작하여 수개월 사이에 수십만 자를 만들었다. 제(權近)가 생각컨대, 전하(太宗)께서는 經史에 뜻을 두셔서 나라를 다스리느(政治) 근원을 깊이 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教化를 열며, 덕의 교육(德敎)을 넓혀 당시 세상(當世)을 맑게 하고, 후세까지 전할 것을 생각하시어, 정성을 기울여 이 글자(癸未字)를 鑄造하셨으니, 이렇게 인쇄된 책들은 무수히 많을(萬卷) 것이며, 영원히(萬代) 전할 것이다. 실로 넓고 큰 규모와 깊고 먼 사려가 이와 같으니 .. 이 해(1403) 11월 초하룻날에 삼가 발문(跋)을 쓰다.¹⁴⁾

라 하였다. 이 인용문에서는 ‘정치를 펴는데 필요한 중국의 典籍을 구하기 어렵고, 또 목판본은 훼손되기 쉬울 뿐 아니라 모든 서적을 (목판으로) 간행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연유로 왕이 銅活字를 주조하여, 국가의 정치에 필요한 전적들을 전파시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깊이 하고 후세까지 전하기 위하여 多種의 전적들을 인쇄함으로써 국가의 무궁한 이익을 삼고자 한다’는 것이 그 要旨이다. 필자는 이

14) 權近, 「陽村集」卷22, 跋語類 鑄字跋’.

“榮樂元年 春二月 殿下謂左右曰 凡欲爲治必須博觀典籍 然後可以窮理正心 而致修齊治平之效也 倂東方在海外 中國之書罕至 板刻之本 易而剝缺 且難盡刊天下之書也. 予欲範銅爲字 隨所得書 必就而印之 以廣其博 誠爲無窮之利. 然其供費 不宜歛民, 予與親勳臣僚有志者共之 庶有成乎. 於是悉出內帑, 李穡 等掌之. 又出經筵古注詩·書·左氏傳 以爲字本. 自其月十有九日而始鑄 數月之間多至數十萬字. 慕惟我殿下 留神經史 以濬出治之源 而闡修文之化 思廣德教 以淑當時 而傳後世 拳拳焉. 爲鑄是字 以印群書 可至於萬卷 可傳於萬世. 規模宏大 思慮深長如此. 是年後十一月初吉拜手稽首敬跋.”

것이 바로 태종 당시 계미자 鑄造의 정확한 背景이라고 판단한다. 즉, 太宗은 儒家政治의 實現이라는 建國理念을 구축하기 위하여 政治理念과 관련한 이른바 新知識이라 볼 수 있는 儒學 관련도서들을 시급하게 보급·확산시켜야 하는 시점이었으며, 또한 조선 초기 금속활자 주조는 官鑄活字였기 때문에 營利性을 크게 띠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두 특징이라 할 것이다.¹⁵⁾ 그리하여, 조선 政府는 國家經營에 필요한 多様な 전적들을 경제적·실용적으로 인쇄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미자의 주조와 함께 역사류(5종)·유교류(4종)·문학류·법학류·지리류 등 정치권을 떠서 시급한 전적들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차례로 간행하면서, 조선왕조는 비로소 崇儒右文정책의 理念的 土臺構築에 박차를 가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지리류의 「지리지전서 동림조담경」은 陰陽科 初覆試에서 講書로 채택되는 것으로, 이 당시에 이미 사대부뿐만 아니라 중인 계급의 인재등용을 위한 서적을 간행하였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요컨대, 계미자는 국가에 의하여 公金(內帑金)으로 주조된 官鑄活字이기 때문에 營利性을 크게 띠지 않으며, 계미자 간행도서 14種은 모두 中國의 木板印刷圖書를 수입하여 이를 迅速하게 금속활자로 간행하였고, 崇儒右文정책에 근거하여 儒家政治의 구현을 위한 당시의 新知識이라 할 수 있는 儒敎書(28.6%)를 비롯한 역사(35.7%)·문학(14.3%)·법학(7.1%)·지리(7.1%) 등 5개의 類에 속하는 전적들을

15) ① 구텐베르크 금속활자의 특징은 ‘공간적 擴散性과 商業性(營利性)’에 있다(이여령, “인쇄욕망의 근원에 있는 것 -인쇄문화의 東과 西-”, 『제3회 청주국제인쇄출판학회』(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11)고 하였다.

② 한편, 「太宗實錄」卷 19, 太宗10年(庚寅) 2月 甲辰(7日)條에, “처음으로 주자소에 명하여, 서적을 인쇄하여 팔도록 하였다(始令鑄字所 印書籍鬻之)”라는 기록이 있다. 이같이, 비록 주자소에서 인쇄된 서적의 판매가 허락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주자소에서 영리성을 띤 적극적인 商行爲가 실시되었다는 등의 여타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쉽게 검색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이른바 당시 新知識이라 할 수 있는 儒學·歷史 등의 새로운 정보가 수록된 도서의 인쇄에 따른 신속한 국내 보급 및 확산을 꾀하기 위한 太宗의 판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 기록에만 의존하여, 朝鮮朝주에 자소에서 인쇄된 서적이 어떤 유통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리성을 띤 상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주자소에서 인쇄된 금속활자본에 대하여 상업성을 띤 서적이라고 무조건 간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골고루 간행하여 보급·확산시킴으로서 國家經營에 이바지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3. 庚子字 刊行圖書의 分析

庚子字(1420)¹⁶⁾는 계미자를 개량한 것으로, 中·小字의 동활자로서 계미자보다 字樣이 훨씬 작으면서도 박력이 있고 예쁜 것이 그 특징이다.¹⁷⁾ 이 경자자는, 세종이 즉위한 직후라 할 수 있는 세종 2년(1420) 겨울부터 주조하기 시작하여 세종 4년(1422) 10월에 완성되었다. 이제 <표 2>에 보이는 경자자로 간행한 36종의 서적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 및 儒家類에 속하는 部類의 관련 전적은, 전체도서 36종 중 「진서산독서기대학연의」(1422)를 비롯한 7종(19.4%)이 있다. 이들 전적들을 소주제로 세분하여 보면, 그 대부분이 이른바 四書五經류의 경서에 속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蒙學敎育을 위한 「집성소학」(일련 14)과 儒家哲學에 속하는 性理學서인 「뉘설경학대장」(일련 21)도 간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자자의 간행도서에서는 「장자권제구의」¹⁸⁾를 비롯한 道家류의 도서(일련 11·34·36) 3종(8.3%)이 보이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 老壯思想의 전적들은 그 내용이 儒家思想과 일치하기 때문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학류는 「송조명현오백과가방대전문수」(일련 9)를 비롯한 8종(22.2%)의 전적이 보인다. 이 문학류를 소주제로 다시 분류하여 보면 산문선집·詩·經疑·對策·古賦·文選 등 이른바 科文六體가 다양하게 골고루 간행되었다는 것을 확

16) 庚子字 印本 도서에 대한 상세한 논술과 그 인본 각 도서에 대한 해설은, (윤상기, “庚子字와 그 印本”, 『古印刷文化』 제10집(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3), pp.59-90.) 참조 요.

17) 천해봉(1990), p.230.

경자자의 改鑄는 「세종실록」 3년(辛丑) 3월 24일(丙戌)에 기술하기를, ‘鑄字所에 술 120 병을 하사(賜)하다. 이에 서책을 인쇄(印)하는데, 자양과 꼭 맞게 동판을 개주하였더니 납(黃蠟)을 녹이지 않고도 글자가 흔들리지 않아서 매우 楷正하여, 하루에 數十紙를 인쇄할 수 있었다’라 하였다.

18) 이 책은 老·莊·列·三子口義 중의 하나로, 「莊子」 즉 「南華經」에 대한 일종의 주석서로서, 莊子(B.C.365-270)의 입장이 유가정전의 뜻과 매우 부합됨을 강조하고 있다(윤상기(2003), p.78. 참조).

인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 초기 인재등용을 위한 科擧試驗에서 士大夫의 文章力을 연마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문학류를 간행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표 2〉 庚子字(1420) 간행도서

書 名	刊行年月	대주제	소주제	비 고
1 眞西山讀書記大學衍義 59권	世宗4년10월	유교	경서-四書	卞季良 鑄字跋 尊德堂에서 印出
2 重新資校正入註附音通鑑外記	世宗4년11월	역사	중국사	
3 資治通鑑綱目 50권	世宗5년	역사	중국사	
4 老乞大	世宗5년6월	어학(語學)	중국어-초급	
5 朴通事	世宗5년6월	어학	중국어-고급	
6 前後漢直解	世宗5년6월	역사	중국사	
7 孝經大義	世宗5년6월	유교	경서-五經	
8 通鑑續編(綱目續編)	世宗5년6월	역사	중국사	
9 宋朝名賢五百播家芳大全文粹	世宗6년1월	문학(集書)	중국-산문선집	
10 大學大全	世宗6년2월	유교	경서-四書	국립도서관 一山文庫
11 莊子虞齋口義 ¹⁹⁾ 10권	世宗7년正月	도가(道家)	노장사상-유가	
12 司馬遷史記 130권	世宗7년11월	역사	중국사	
13 唐律疏義	世宗9년3월	문학	중국-시	
14 集成小學	世宗10년9월	유교	몽학(蒙學)-교육	
15 西山先生 眞文忠公文章正宗 24권	世宗10년11월	문학	중국-集書	
16 楚辭後語	(청문실서 목)	어학	사전(辭典)	단종2년 密陽刊(복각)
17 直指方	世宗13년5월	의학	진단(診斷)學	
18 傷寒類書	世宗13년5월	의학	의경(醫經)-총론	
19 醫方集成	世宗13년5월	의학	의방(醫方)	
20 全國策 ²⁰⁾	世宗朝	역사-정치	중국상고사-정치	
21 類說經學隊仗	世宗朝	유교	동양철학-성리학	
22 新刊歷學三場文選經疑	세종조	문학	경의(經筵) ²⁴⁾	
23 新刊歷學三場文選對策	世宗朝	문학	文選 對策 ²⁵⁾	
24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古賦	世宗朝	문학	문선-古賦 ²⁶⁾	
25 漢書	世宗朝	역사	중국사	
26 論語集註大全	世宗朝	유교	경서-四書	
27 小學大文吐	世宗朝	유교	경서-四書	
28 文選六臣注 60권	世宗朝	문학	문선(文選)	序文 癸未字
29 少微家塾点校附音通鑑節要	世宗朝	역사	중국사	
30 五朝名臣言行錄	世宗朝	傳記(역사)	중국-(宋初期)傳記	
前, 後, 別集, 外錄 83권				
31 新箋決科古今源流至論	世宗朝	군사(국방)	중국-병법(兵法)서	서울대학교 想白문고 卞季良 鑄字跋
32 讀史先看一代一君各有統體 1冊	世宗朝	역사		
33 選詩演義 2권2책	世宗16년7월	문학	중국-詩	
34 老子虞齋口義 ²¹⁾ 2권1책	세종조	도가(道家)	노장사상-유가	김병구 소장
35 忠義直言 ²²⁾ 3권1책	세종조	사전(역사)	주체별인명사전	
36 列子虞齋口義 ²³⁾ 2권2책	세종조	도가	노장사상-유가	

19) 이 책은 老·莊·列 三子口義 중의 하나로, 「莊子」 즉 「南華經」에 대한 일종의 주석서로서, 장자(莊子; B.C. 365-270)의 입장이 유가경전의 뜻과 매우 부합됨을 강조하고 있다(윤상기, “庚子字와 그 印本”, p.78. 참조).

20) 중국 전국시대에 활약한 策士와 謀士들의 문장을 모은 것으로서, 周 元王부터 秦 始皇까지 240

위와 같은 유가류와 문학류의 간행은 儒家政治의 실현을 위한 과거제도를 통한 인재의 등용을 위하여, 유가사상과 관련한 이론과 新知識의 보급과 확산이라는 측면을 重視하였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셋째, 역사류는 「통감외기」(일련 2)를 비롯한 11종(30.6%)이 보인다. 이들 역사류의 전적들을 소주제로 구분하여 보면 모두 中國史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그 중에는 중국 上古史에서 정치와 관련된 「전국책」(일련 20)을 간행한 것을 보면, 역사류의 전적 간행은 중국정치의 先例들을 참고하기 위하여 특히 역사류의 간행에 치중하였으며, 아울러 충신들의 傳記 및 言行을 나타내어 사대부들이 국가에 충성을 바치도록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오조명신인행록」·「忠義直言」도 간행하였음을 파악된다.

넷째, 경자자 최대의 특징은 세종 13년(1431)에 간행된 「직지방」을 비롯한 의학류 전적 3종(8.3%)의 간행이 登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소주제로는 診斷學·醫經·醫方 3종을 동시에 간행하여 이 책들을 本監·惠民局·濟生院에 分給하게 한 것으로써, 世宗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바로 이 당시(1431)부터 국민의 健康 즉 民生의 安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나섰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그밖에 어학(사전)류에 속하는 「박통사」·「노걸대」·「초사후어」(일련 4·5·16) 3종(8.3%)을 세종 5년(1423)에 간행하여, 중언계층의 通譯官을 양성하기 위한 布石을 두기 시작함으로써 중국과의 外交 관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년 동안의 여러 책사·모사들의 주장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合從連橫策의 蘇秦과 張儀의 주장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이다(윤상기(2003), p.79. 참조).

21) 이 책에 대한 상세한 해제는, (남권희, “麗末鮮初의 出版文化史 — 考察, —金秉九 所藏資料를 中心으로—” 『古印刷文化』 제7집(2000), pp.141-143.) 참조 요.

22) 이 책에 대한 상세한 해제는, 남권희(2000), pp.143-144. 참조 요.

23) 이 책에 대한 상세한 해제는, 남권희(2000), pp.143-144. 참조 요.

24) 經疑: 應試文 체제의 하나로서 경전 가운데 어떤 의문점 하나에 관하여 그에 대한 회답을 쓰는 것.

25) 對策: 정치 경제 및 학문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여 응시자의 의견을 묻는 것.

26) 古賦: 先秦兩漢 시대의 賦(詩經의 六義의 한 가지로 시의 창작기법을 의미하며, 사실대로 전달하는 표현법을 의미함).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군사·國防류로서 중국의 兵法書인 『신전결과고금원류지론』(일련 31)을 간행한 특징을 보인다. 이에 근거하여 보면 世宗朝에서부터 외교·국방에 대한 본격적인 採備에 나섰음이 檢證된다.

요컨대, <표 2>에 보이는 36종의 경자자 간행도서는 ①유교(19.4%), ②역사(30.6%), ③문학류(22.2%), ④어학(외교; 8.3%), ⑤의학(8.3%), ⑥道家(8.3%), ⑦軍事(2.8%) 類 등 그 주제가 7개의 類로 확대된 도서들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유교류의 간행에 있어서도 經書 뿐만 아니라 蒙學(교육)·성리학 등의 소주제 관련서를 간행하였고, 역사류의 간행에 있어서도 傳記 및 사전(충신 인명사전)·정치관련서 등 더욱 다양한 소주제의 전적들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문학류의 간행에 있어서도 詩 뿐만 아니라 古賦·對策·經疑·文選 등 소위 科文六體의 소주제 관련서가 더욱 다양하게 간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유교류와 문학류의 도서들이 집중적으로 간행된 것은 이른바 科擧試驗을 통한 인재의 등용과 관련한 교육적 측면을 重視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그리하여 세종조부터 중앙정부는 정치를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科擧를 통한 인재의 등용을 비롯하여 民生의 安慰를 위한 醫學·敎育·國防·外交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간행을 추진함으로써, 경자자의 도서간행은 政治의 安定과 民生의 安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4. 甲寅字 刊行圖書의 分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종 16년(1434) 7월에, 경자자의 字體가 纖密하여 열람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자자보다 좀 더 큰 형태의 주자를 改鑄한 것이다.²⁷⁾ 이것이 바로 甲寅字(初鑄甲寅字)이며, 一名 衛夫人字라고도 한다. 이 갑

27) 『세종실록』 16년 7월 丁丑조에 ‘印版과 鑄字를 다같이 평정하고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밀랍을 녹여 사용하지 않고 많이 찍어내도 활자가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金鑄의 鑄字狀(『高麗史節要』 卷35)에서는 ‘경자자의 자체가 가늘고 뾰뚱하여 열람하기 어려워 大字가

인자는 方正한 楷書體로 宣祖 시대까지 활용되었으며, 특히 세종 자신이 몸소 연구(嚆)하고 유심히 살펴보았으며(監), 특히 世宗은 당시에 과학기기에 해박한 지식을 지녔던 金墩(1385-1440) 및 물시계를 발명했던 蔣英實·金鑑, 천문학자였던 李純之 등 당시 뛰어난 과학기술자들을 총동원하여 이 갑인자를 주조하도록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 활자 字體의 모양이 아름답고 明正할 뿐만 아니라 인쇄의 組版에 있어서도 전혀 밀랍을 쓰지 않고 대나무로 빈틈을 메우는 조립식으로 판을 짜서 인쇄하는 방법에 성공하였다'²⁸⁾고 볼 수 있다. 또한 갑인자의 字本은 經筵에 소장된 「孝順事實」·「爲善陰騭」·「論語」를 모범으로 삼았고, 부족한 것은 晉陽大君 金柔:(뒤의 世祖)가 닮게 써서 보충하게 하였다.

이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갑인자로 주조·인쇄한 서적 72종에 대한 주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 및 유학에 속하는 部類의 관련 전적은 「대학연의」(1434)를 비롯한 9종(12.5%)이 있다. 이들 전적들을 소주제로 세분하여 보면, 그 대부분이 경서류에 속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蒙學敎育을 위한 「소학」이 세종·문종 때 각각 간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이며, 儒家哲學에 속하는 性理學書인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전후집」(일련 10)도 간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역사류는 「자치통감」(일련 8)를 비롯한 12종(16.7%)의 전적이 있다. 이들 역사류의 전적들을 소주제로 구분하여 보면, 특히 이 당시부터 한국의 역사 즉 우리의 역사를 다룬 「고려사절요」·「국조보감」·「동국통감」·「동국세년가」(일련 44, 51, 61, 5) 4종(5.6%)이 간행됨으로써, 우리(한국)의 역사에 관한 主體性的 發露가 바로 이 당시인 세종 18년(1436)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로소 우리의 역사에 대한 저술과 간행이 發芽되기 始作하였다는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필요한 데서 重鑄한 것이 그 동기가 하였다.

28) 천해봉(1990), p.234. 참고.

〈표 3〉 甲寅字(1434) 간행도서²⁹⁾

	서명	간행년	대주제	소주제	비고
1	大學衍義 40권	世宗 16년	유교	經書-사서(四書)	재간본-중종년간
2	近思錄集解 4책	世宗 17년	유교	동양철학-성리학-宋代	재간본-중종년간
3	分類補註李太白詩 30권	世宗 17년	문학(集書)	중국문학-시(詩)	
4	歷代世年歌 1권	世宗 18년	역사-음악	중국역사-음악	
5	東國世年歌 1권	世宗 18년	역사-음악	한국역사-음악	
6	標題註疏小學	世宗 18년	유교-蒙學	蒙學-교육	
7	朱文公校昌黎先生集 40권	世宗 20년	문학(집서)	개인문집(文集)	재간본-중종명종간
8	資治通鑑綱目訓義 40권(甲寅字, 丙辰字)	世宗 20년	역사	중국역사	재간본-중종년간
9	唐柳先生集 48권	世宗 20년	문학(집서)	개인문집	
10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前後集 23책	世宗 26년	유교	동양철학-성리학	재간본-중종년간
11	纂註分類杜詩	世宗 26년	문학	중국문학-시부	재간본-중종명종간
12	三韓詩句鑑 1책	世宗 중기	문학	한국문학-시(고려)	
13	四餘應度通軌 1책	世宗 26년	천문·산법	천문(天文)	
14	七政算內編 3책	世宗 26년	천문·산법	천문-授時曆(曆法)	
15	七政算外編 3책	世宗 26년	천문·산법	천문-력법(曆法)	
16	詩選, 續編, 補遺 10책	世宗 26년	문학	문학-시	재간본-명종 8년
17	東國正韻 6권	世宗 30년	어학(사전)	한국-韻書	한글 사용, 小字와 序文의 大字가 甲寅字
18	月印千江之典	世宗 31년	문학	한국문학-시·시화	한글
19	釋譜詳節	世宗 31년	불교-한글	한국불교-석보상절	한글
20	舍利靈應記 1책	世宗 31년	불교	한국-불교사	金守溫謹記
21	法華經 30부(1450)	세종 32년	불교	불전-법화부	
22	春秋經傳集解 39권	世宗 말경	유교	경서-춘추류	
23	詩傳大全	世宗朝	유교	경서-詩類	
24	禮記大全諺讀 6책	世宗朝	유교	경서-禮類-한글	한글
25	增刊校正王壯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 25권	世宗朝	문학	중국-시-별집	재간본-성종년간
26	國語	世宗朝	역사	중국사-춘추전국	
27	太陽通軌 1책 (李純之校正)	世宗朝 (세종 26년 추정)	천문·산법	천문-력법	明, 「大統曆通軌」 교정 재편집. 칠경산내편 편찬에 도움을 줌
28	授時曆捷法立成 1책	世宗朝	천문·산법	천문-授時曆(력법)	
29	五星通軌 1책 (수, 금, 화, 목, 토성)	世宗朝	천문·산법	천문-수시력(력법)	明, 「大統曆通軌」 교정 재편집
30	重修大明曆 1책	世宗朝	천문·산법	천문-력법	명나라 력법
31	庚午元曆 1책	世宗朝	천문·산법	천문-력법	
32	交食通軌 1책 (日蝕, 月蝕 추보법)	世宗朝	천문·산법	천문-력법	明, 「大統曆通軌」 교정 재편집
33	大統曆日通軌 1책	世宗朝	천문·산법	천문학-력법	
34	宣德十年月五星凌犯 1책	世宗朝	천문·산법	천문학	
35	授時曆立成 1책	世宗朝	천문·산법	천문학-수시력	
36	山谷詩註 內, 外 別集 20책	世宗朝	문학	문학-시	재간본-중종명종간
37	唐詩鼓吹	世宗朝	문학	중국-唐詩	

29) 이 갑인자 간행도서에서는 丙辰字로 간행한 도서도 포함하였음.

38	唐詩鼓吹續編	世宗朝	문학	중국-唐詩	제간본-성종 14년
39	唐宋句法	世宗朝	문학	중국문학-기타	
40	前漢書	世宗朝	역사	중국역사	
41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24권	世宗朝	의학	중국-의학	
42	少微通鑑語釋 2책	世宗朝	역사	중국사-일반	
43	小學集註	文宗即位年	유교-蒙學	蒙學-교육	
44	高麗史節要 35책	端宗元年	역사	한국-역사(교려사)	
45	洪武正韻(譯訓 6책)	端宗 3년	어학(사진)	어학-韻書	한글 사용
46	妙法蓮花經	世祖 2년	불교	불전-법화부	
47	御製詩 1책	世祖 2년	문학	한국-문학-諸王詩	
48	交食推步法 1책	世祖 3년	천문·산법	천문-리학	戊寅字 (1454) 혼용.
49	永嘉眞學大師證道歌集(註解)	世祖 3년	불교	제종파-선종-어록	
50	佐翼原從功臣錄券	世祖 4년	정치·행정	한국-행정-인사	
51	國朝寶鑑(四祖寶鑑) 7권	世祖 4년	역사	한국사-조선시대사	
52	易學啓蒙要解 4권	世祖 4년	유학(유교)	유학-易理論	戊寅字 (1454) 혼용. 제간본-성종 8년
53	東國地誌 1책	世祖朝	지리	한국-지리·여행기	
54	陣法	世祖朝	군사(국방)	兵書	
55	大乘起信論疏 1책	世祖朝	불교	佛典-論集部	元曉 撰
56	楞嚴經跋	成宗 3년	불교	불전-밀교부-跋	跋文
57	北史	成宗 6년	역사	중국사	제간본-중종명종간
58	海東諸國記 4책	成宗 7년	지리-외교	일본-지리·여행기	申叔舟 撰 제간본-중종 7년경
59	御製詩(壬寅年元日內宴) 1책	成宗 13년	문학	시	
60	經國大典 6권	成宗 7년경	법학	한국-법전	
61	東國通鑑	成宗 17년	역사	한국-역사	
62	漂海錄	成宗 19년	지리-외교	중국지리·여행기	1488, 崔溥 지음.
63	皇華集 ³⁰⁾	成宗 19년	외교-문학	한국외교-문학-詩(송집)	중국 使臣 과의 교류 관련 詩 모음집.
64	精選唐宋十家聯珠詩格	成宗 19년	문학	중국문학-詩賦合集	
65	東文選	成宗朝	문학	한국문집-총집	
66	文選 五臣注	成宗朝	문학	중국문집-총집	제간본(六臣注)·명종 선조간
67	香山時抄	成宗朝	문학	시	
68	性理大全	成宗朝	유학	宋代性理學	
69	詩大文	成宗朝	문학	중국문학-詩經	
70	書大門	成宗朝	역사	중국역사-上古史	
71	須溪先生評點簡齋詩集	成宗朝	문학	중국문학-詩賦別集	제간본-중종 39년
72	後漢書	成宗朝	역사	중국역사-中古史	

30) 皇華 : 「詩經」 鹿鳴에 실린 送別詩인 '皇皇者華'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임.

셋째, 문학류는 「이태백시」(일련 3)를 비롯한 14종(19.42%)의 전적이 보인다. 이 문학류를 소주제로 다시 분류하여 보면, 중국문학에서는 그 대부분이 詩와 관련성이 많은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이 문학류에서 特記할만한 것은, 이 갑인자부터 우리나라의 문학인 고려시대의 詩들을 수록한 「삼한시구감」을 비롯하여 「월인천강지곡」 및 「御製詩」(세조 2년, 성종 13년) 2部 그리고 「東文選」 등 우리나라의 시와 散文 등 4종(5.6%)을 간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의 건국 후 안정이 되면서 문학에서도 이른바 '우리 것'에 대한 主體性的 發露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갑인자의 큰 특징은, 이 갑인자부터 「칠정산내편」을 비롯한 天文・算法류에 대한 간행이 무려 13종(18.1%)이나 대거 간행됨으로써 본격적인 科學技術書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천문・산법류의 간행은 세종시대(1444년)부터 曆法과 과학기기(해시계・물시계・측우기 등) 및 과학기술의 발명・발견으로 인하여 국민의 主業인 農業이나 民衆의 日常生活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民生의 安定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갑인자의 주조와 개발은 조선의 과학기술발전 및 민생의 안정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이 파악된다.

여섯째, 갑인자의 또 하나 큰 특징은 世宗(1419-1449)의 末期인 세종 29년(1447)부터 「동국정운」・「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 등 한글이 인쇄된 도서가 드디어 5종(6.9%)(일련 17, 18, 19, 24, 45)이나 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종이 그의 재위 25년(1443) 12월에 訓民正音(한글)을 頒布하고, 이 한글에 의하여 우리말의 소리에 관한 새로운 韻書인 「동국정운」을 펴내면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등도 함께 갑인자로 印出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갑인자와 더불어 필수적으로 논술해야 하는 사항은, 이 갑인자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글활자를 주조하여 漢字와 並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종 28년(1446)에 승하한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엮은 國譯本 「석보상절」과, 그것을 세종이 읽고 읊었다고 전해지는 「월인천강지곡」을 인쇄하기 위하여 고딕체의 한글 大字와 小字를 각각 銅活字로 주조한 것이다.³¹⁾ 특히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한글이 창제된 직후 이 두 전적에서 한글表記의 示範과 使用例가 갑인자 및 월인석보 한글활자의 도서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월인천강지곡』은 그 내용의 記入에 있어서 漢字보다 한글이 먼저 기록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갑인자의 특색이라 하겠다.

일곱째, 무엇보다 갑인자 간행도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역사·문학·지리·법전·어학(사전)·諺解本·공신록권 등 우리나라의 事情에 관한 저술인 이른바 韓國 관련 各種 주제의 典籍들이 무려 14종(19.4%)(〈표 3〉의 진한 글씨의 書名)이나 붓물처럼 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미자나 경자자에서는 중국의 목판인쇄 서적을 수입하여 그것을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이른바 新知識의 정보(contents)를 보급·확산하는데 급급하였다. 그러나 이 갑인자 간행도서에 이르러서부터 主體性있는 우리의 역사와 文化全般에 관한 저서들이 드디어 인쇄·보급되었음은 特記할만한 사항이다.

여덟째, 갑인자 간행도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갑인자부터 불교전적이 무려 6종(8.3%)이나 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불교전적의 面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석가모니의 생애를 한글로 노래한 『석보상절』이 수양대군(世祖)에 의하여 저술·간행되었고, 불교신앙의 주요 모체 중의 하나인 舍利에 관한 『사리영웅기』, 불교경전 중 긍정적·진취적 경향을 보이는 『법화경』 깨달음의 核心要諦를 노래하는 『증도가』, 대승불교의 最高峰이라 일컬어지는 元曉의 『대승기신론소』 및 한국불교의 중요경전인 『능엄경(跋)』 등 당시 불교의 核心 중의 핵심이 거의 모두 갑인자에 의하여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왕조의 崇유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세종조 이후 王室과 사대부의 婦女子 및 일반 民衆을 염두에 둔 불교서적의 간행은 왕실과 民心의 安定이라는 점과 文盲打破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불교서적의 간행은 看過해서는 아니 되는 重要事項이라 하겠다.

아홉째, 우리나라 소리의 音韻을 정리한 『동국정운』을 비롯한 韻書류의 간행이

31)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8), pp.49-50. 참조.

2종(2.8%)이 있다. 이들 간행도서는 우리말 한글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열 번째, 「동국지지」를 비롯한 지리류의 도서가 3종(4.2%)이 간행되었다는 점을 注視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지를 다룬 「동국지지」, 중국의 지리와 풍속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표해록」, 일본의 지리·여행기를 수록한 「해동제국기」에서, 우리나라의 著者에 의하여 한국·중국·일본의 지리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각각 차별성 있게 상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갑인자부터 외교(外交)를 위한 상대국가(일본·중국)의 地理와 風俗 등을 다룬 자료가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열한 번째, 외교류와 문학류에 동시에 속하는 「황하집」(1종; 1.4%), 그리고 의학류에 속하는 「황제내경」(1종; 1.4%)의 간행도 눈여겨 볼만 하다.

열두 번째, 갑인자 간행도서부터 복합주제의 전적이 간행된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즉, 우리의 역사를 음악으로 노래하는 「동국세년가」(역사-음악), 석가모니의 생애를 최초의 한글로 저술한 「석보상절」(불교-한글), 왕실의 선조들을 한글로 노래한 「월인천강지곡」(한국문학-음악), 중국 使臣과의 교류중에 읊은詩들을 모은 「황화집」(외교-문학) 등 4종(5.6%)이 나타남으로써 이 시대부터 더욱 다양한 귀중한 도서들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위와 같이 갑인자 간행도서 72종에서부터 ①유교, ②문학, ③역사, ④역사-음악, ⑤천문·산법, ⑥어학, ⑦불교, ⑧불교-한글, ⑨의학, ⑩정치·행정, ⑪지리, ⑫국방(군사), ⑬외교-문학, ⑭법학 등 그 주제가 무려 14개의 類 이상이나 되는 多樣的 각종 주제의 더욱 다양한 도서들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자자 간행도서의 주제가 7개 類에 그쳤음에 비하여 무려 100%(倍)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이 갑인자 간행도서에 이르러서 비로소 조선 시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및 과학기술(천문·산법 등)全般에 걸쳐 국가정보의 流通을 위한 基盤(인프라)이 굳건하게 確立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갑인자 간행도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5. 庚午字 및 乙亥字 刊行圖書의 分析

庚午字는 文宗 즉위년(1450)에 安平大君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만든 銅活字이다.³²⁾ 불행하게도 경오자는 단지 5-6년 동안만 사용되었으며, 이 경오자를 녹여서 大·中·小字로 새로 주조한 것이 바로 을해자이다.

乙亥字는 세조의 원년(1455)에 姜希顔(1417-1464)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만든 동활자이다. 세조는 세종조의 금속활자 인쇄를 계승하여, 그가 재위한 14년(1455-1468) 동안에 을해자를 비롯하여 丁丑字·戊寅字·乙酉字를 연이어 주조하였다.

경오자(1450)부터 을해자(1455)·정축자(1457)·무인자(1458)·을유자(1465)에 이르는 5종의 금속활자 주조에 있어서 최대의 특징은, 이들 활자는 모두 우리나라의 이름난 書藝家들의 손으로 쓴 글씨를 글자본(母本)으로 하여 鑄造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主體性은 세조 때에 더욱 강렬한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 또한 큰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세종 때의 갑인자의 간행도서에 관한 주제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저술을 금속활자로 간행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 경오자에서부터는 금속활자의 주조를 위한 글자본 또한 주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저명한 서예가들이 쓴 글씨를 模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체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오자와 을해자로 간행한 금속활자본들의 주제를 각각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경오자 간행도서는 종래 「고금역대십팔사략」과 「고문진보대전 후집」의 2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근래에 남권희 교수에 의하여 「신편산학계몽」 1種이 더 발굴·소개되었다. 이들 도서의 대주제는 '역사'와 '문학' 및 '수학'類에 각각 속하는 전적이랄 수 있다. <표 4>의 을해자 간행도서 44種의 주제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32) 안평대군은 그의 형인 世祖의 왕위 찬탈을 반대하다가 賜死되었다. 그 뒤에 이 경오자를 녹여서 을해자의 주조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경오자의 사용기간이 6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전래되는 典籍도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표 4〉 庚午字(1450) 및 乙亥字(1455) 간행도서

	서명(庚午字)	간행년월	대주제	소주제	비 고
1	古今歷代十八史略 10권	文宗元年(辛未)	역사	중국역사	
2	古文珍寶大全後集	端宗即位年	문학	중국문집-총집	
3	新編算學啓蒙 ³³⁾	세종-성종조	수학	수학-입문서	授時曆 관련 曆算家의 관심 서적, 김병구 소장
	서명(乙亥字: 丁丑字 포함)	간행년월	대주제	소주제	비 고
1	訓辭 3권	世祖 3년	역사	詔令	
2	北征錄 3권	世祖 7년	역사-군사	한국-紀事	
3	御製將兵說[註解箋] 1권	世祖 8년	군사	군사	제간본-명종 13년
4	金剛經諺解 1권	世祖 10년	불교	불전-반야부	한글번역
5	救急方諺解 1권	世祖 12년	의학	醫方	한글번역
6	周易傳義康寧駁口訣	世祖 12년	유교	사서오경	
7	高麗史 世家 四十六, 志三十九, 年表二, 列傳五十, 日錄二	世祖初	역사	한국-고려사	
8	貞觀政要詳解	世祖初	행정	중국-행정	
9	天台四教義集解 上下 2권	世祖初	불교	제종파-천태종	
10	釋迦如來聖道記 1권	世祖初	불교	역사·전기	
11	佐理功臣錄券	成宗 2년	행정	한국-인사 文券	
12	經國大典	成宗 2년	법률	한국-법전	
13	世宗實錄	成宗 4년(1473)	역사	한국사-조선실록	
14	文宗實錄	成宗 4년	역사	한국사-조선실록	
15	端宗實錄(魯山君日記)	成宗 4년	역사	한국사-조선실록	
16	世祖實錄	成宗 4년	역사	한국사-조선실록	
17	睿宗實錄	成宗 4년	역사	한국사-조선실록	
18	國朝五禮義 6책	成宗 5년(1474)	역사	한국-典禮-通禮	
19	宋史 496권	成宗 5년	역사	중국사	
20	高麗史節要 35권	成宗 7년(1476)	역사	한국-고려사	
21	三國史節要 14권	成宗 7년(1476)	역사	한국-삼국사	
22	醫方類聚 원존 252책 266권 (266권 264책)	成宗 8년(1477)	의학	韓醫學-醫典	世宗 1445년 命 30帙 印出.
23	東文選 133권	成宗 9년	문학	한국문학-총집	
24	地藏菩薩本願經 3권	成宗 10년	불교	불전-경집부	
25	纂註分類杜詩諺解 25권	成宗 11년	문학	중국-사-國譯	한글번역
26	金剛般若波羅蜜經三家解 5권	成宗 13년	불교	불전-반야부	竝用 한글자
27	永嘉大師證道歌南明禪師繼頌諺解	成宗 13년	불교	法語·語錄	한글번역
28	湯液本草	成宗 14년	의학	本草	
29	佛頂心陀羅尼經 上中下 1책	成宗 16년	불교	불전-밀교부	

33) 이 책에 대한 상세한 해제는, 남권희(2000), pp.144-160. 참조 요.

30	東國輿地勝覽	成宗 18년	지리	한국-總誌	
31	救急簡易方	成宗 20년	의학	韓醫學-醫方	
32	文山先生文集	成宗 24년	문학	文集	
33	春秋胡氏傳	成宗朝	역사	중국-上古史	
34	古今歷代標題注釋十九史略通攷	成宗朝	역사	중국역사	재간본-중종선조간
35	新刊補注釋文皇帝內經素問 12권	成宗朝	의학	중국-의경·충본	
36	象院題語	成宗朝	지리	충지류(지침서)	중국의 풍속 등 수록
37	書大門(小子)	成宗朝	역사	중국-上古史	
38	詩大文(小子)	成宗朝	유교	사서삼경-시경	
39	音注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成宗朝	역사	중국-춘추전국	
40	搜聞瑣錄	成宗朝	문학	일반	
41	大佛頂首楞嚴經	成宗朝	불교	불전-밀교부	
42	賦選	成宗朝	문학	詩賦	
43	東萊博議	成宗朝	역사	중국-춘추전국	
44	大佛頂.....首楞嚴經	世祖 1(1455)	불교	불전-밀교부	並用 한글자

첫째, 유교류의 전적은 「주역」과 「시대문」의 불과 2종(4.5%)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경자자와 갑인자에서 활발하게 간행되었던 유교류 전적 간행의 퇴조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조선 건국의 벽두에 崇儒右文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계미자에서는 무려 28.3%나 점유하고 있고, 경자자에서는 19.4%, 갑인자에서는 12.5%를 차례로 보이던 유교류의 간행도서는, 을해자에 와서 급격하게 감소(4.5%)되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세조 때부터의 서적정책은 多樣性과 主體性이라는 현상으로 등장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유교류와 함께 문학류의 간행도서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을해자 중 문학류의 간행 또한 단 5종(1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계미자에서 14.3%, 경자자 22.2%, 갑인자 19.4%를 보인 문학류가 11.4%로 하향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국문학의 총집인 「東文選」이 갑인자에 이어 다시 성종 9년(1478)에 간행된 것은 우리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至大하였음을 증명하였음을 나타내어 주는 徵表라고 분석된다.

셋째, 을해자 중 역사류로 간행한 16종(36.4%)에 있어서도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을해자 역사류 전적 중에서 「고려사」·「삼국사절요」를 비롯한 한국사(실록 포함) 관련 간행도서가 무려 9종이나 차지함으로써, 을해자 역사류 간행도서의 56.3%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成宗조에 들어와서는 「세종실록」부터

「예종실록」까지 무려 5대에 걸친 王朝實錄을 을해자로 간행하면서 국가의 典禮와 관련한 「국조오례의」를 동시에 간행하는 등 主體的인 우리의 역사 正立에 눈부신 업적을 이루고 있다는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사류 전적 간행의 특징은 조선왕조 當代 뿐만 아니라 「고려사」·「고려사절요」·「삼국사절요」 등 우리의 역사를 소급하여 간행함으로써, 그 傳統性에 입각한 조선왕조의 定立에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넷째, 을해자에서는 위와 같은 역사류의 간행과 함께 조선이라는 국가의 경영의 합리성을 꾀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을 비롯한 정치·행정(법률)류 3종(6.8%), 지리류 2종(4.5%), 의학류 5종(11.4%), 국방(군사)류 1종(2.3%)이라는 多樣的 주제의 전적이 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종래 조선건국의 벽두에서 中國史에서만 정치의 모범과 사례를 찾던 경향에서부터 세조 이후 다양한 주제의 전적을 개발하여 정치·행정에 직접 도입·실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다섯째, 을해자 간행도서 최대의 특징은, 갑인자 간행도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國譯本(諺解) 및 한국학 관련서적들(<표 7>의 진한글씨 부분의 서명 외) 간행이 무려 22종이나 간행됨으로써 이른바 民生の 문제를 비롯한 각종 주제에서 多樣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①歷史류에서는 「고려사」를 비롯하여 世宗부터 睿宗에 이르는 「실록」 5종 그리고 국가의 典禮를 정립한 「국조오례의」 등 도합 9종의 도서가 간행되었으며, ②文學류에서는 한국문학의 총집이라 할 수 있는 「동문선」과 그리고 「두시언해」의 2종이 보이고, ③佛敎류에서는 「금강경언해」·「금강경삼가해」·「남명송증도가」·「수능엄경」 4종이 있으며, ④醫學류에서는 세종의 王命(1445)에 의하여 우리 손으로 편찬되기 시작하여 民生の 安慰를 위한 의학서인 「의방유취」를 비롯한 「구급방언해」·「구급간이방」의 3종이 간행되었으며, ⑤軍事(국방)류에서는 역사류를 겸한 「北征錄」이 간행되었고, ⑥지리류에서는 우리나라 지리의 總誌라 할 수 있는 「동국여지승람」 1종이 간행되었으며, ⑦정치·행정류에서 人事文券인 「좌리공신록권」 1종이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을해자에서는 國譯 및 한국학 관련도서가 무려 7개의 類에 걸쳐 총 21종의 전적들이 간행됨으로

써, 을해자 전체 간행도서의 절반(50%)을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세종조부터 실행된 이른바 ‘한글의 창제에 의한 文盲打破 및 민생의 안정과 주체성의 발로’ 문제를 세조 및 성종 시대에 더욱 확산・定着시켰다는 점에서 韓國文化史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여섯째, 세종의 한글을 창제(1443; 세종 25)한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국역본의 간행에서, 이 을해자부터는 불교서적의 번역뿐만 아니라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류(『구급방언해』)에서도 국역본이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문학류에서도 『두시언해』가 간행되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한글 창제 이래 불교류의 전적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된 한글본 서적이 의학류와 문학류의 典籍도 인쇄됨으로써 민생은 물론 文化全般에 걸쳐 한글서적의 간행이 확산・보급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일곱째, 불교류의 간행으로는 『금강경언해』를 비롯한 8종(18.2%)이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갑인자에서 8.3%를 점유한 수치에서 외형적으로 을해자에서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조가 창설(1461)한 <간경도감>에서 木板本으로 간행한 불교류 국역전적 9종 이외에도, 간경도감에서는 무려 ‘25종³⁴⁾을 넘고 있는 불교전적 또한 간행하였음도 주목해야 한다. 세조는, 세종의 명을 받들어 일찍부터 불경의 국역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여 오다가, 왕위에 오른 지 7년(1461) 6월에 <刊經都監>을 창설하고, 그 해부터 중요한 藏外佛典들을 간행하였고, 그 익년부터 藏經 및 장외불전들을 간행³⁵⁾하였다. 이들 국역본들은 대체로 본래의 經文에 한글로 토를 달고 그 다음에 한글로 해석하여 간행하였다.³⁶⁾

34) 김두중(1980),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탐구당, 1980), pp.162-163. 참조 요.

35) 간경도감(1461-1471)은 10년 동안 많은 불경과 불경의 국역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세조가 죽고 成宗이 즉위 후, 『斥佛崇儒』의 정책에 따라 간경도감이 폐지되었다.

36) 金斗鍾(1980), pp.167-168.

〈표 5〉 刊經都監의 國譯圖書

	서명	간행년대	대주제	소주제	비고
1	大佛頂首楞嚴經諺解	世祖朝	불교	불전-밀교부-國譯	한글번역
2	妙法蓮華經諺解	世祖朝	불교	불전-법화부-국역	한글번역
3	佛說阿彌陀經諺解	世祖朝	불교	불전-보적부-국역	한글번역
4	禪宗永嘉集諺解	世祖朝	불교	계종과-선종-국역	한글번역
5	金剛般若波羅蜜經諺解	世祖世	불교	불전-반야부-국역	한글번역
6	般若波羅蜜多心經諺解	世祖朝	불교	불전-반야부-국역	한글번역
7	大方廣圓覺經修多羅了義經諺解	世祖朝	불교	佛典-경집부-국역	한글번역
8	牧牛子修心訣諺解	世祖朝	불교	諸宗派-禪宗-국역	한글번역
9	法語諺解	世祖朝	불교	法語·語錄-국역	한글번역

그 후 위 <간경도감>의 불전국역사업은, 성종의 어머니인 仁粹大妃에 의하여 佛典復刊 사업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印經木活字에 의한 佛經印出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을해자에서의 불교류 간행전적 중에서 특히 국역본의 간행은 한글의 사용을 정착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맹을 타파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분석된다. 즉, 문맹타파는 곧바로 국가 및 개인 정보의 유통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글도서(國譯本)의 간행은 이러한 情報流通 즉 커뮤니케이션의 基盤(인프라)을 제공하는 機能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분석하면, 국역도서의 간행으로 인하여 문맹을 타파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에게 이른바 '알권리'를 보장시켜 주고, 또한 '정보의 보급과 전파로 인한 삶의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을 民衆들에게 보급·전파하였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불교류 국역본의 간행은 일반민중 및 사대부·왕실의 부녀자들이 불교 내용의 이해를 촉진시켜 줌으로써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깨우침의 信行으로 발전시켰으며, 이것은 우리문화의 지평을 한꺼번에 몇 단계 伸張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6. 乙酉字 및 甲辰字 刊行圖書의 分析

乙酉字는 세조 11년(1465)에 鄭蘭宗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주조한 대·중·소의 동활자이다. 이 활자는 세조가 圓覺寺를 준공하고 바로 『圓覺經』을 금속활자로 인쇄하기 위하여 주조된 것이며, 아울러 口訣을 달기 위하여 한글활자도 주성하였다.³⁷⁾

甲辰字는 성종 15년(1484)에 『歐陽公集』과 『列女傳』을 그 字本으로 하여, 을유자를 녹여 동활자 30여 만자를 주조한 것이다. 이 때 위 2책에 부족한 글자는 世祖 때 『法語諺解』를 筆寫한 서예가인 朴耕으로 하여금 補寫하도록 하였다.³⁸⁾

이제 <표 6>에 보이는 을유자 및 갑진자 간행도서의 주제를 각각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을유자 간행도서 6종의 주제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을유자는 원래 『원각경』을 인쇄하기 위하여 한글활자와 漢字를 동시에 주조한 것이 큰 특징이며, 세조 때 우리나라의 글씨체를 바탕으로 鑄成한 獨自의인 금속활자라는 점에서, 主體性的 觀點에서 볼 때 우리나라 金屬活字印刷史상 지닌 의미는 매우 크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을유자 6종(총 8종)의 간행도서 중에서 불교류에 속하는 불경이 무려 3종(50%)(총 5종: 62.5%)에 이른다. 또한 6종의 을유자 간행도서 중에서 軍事(국방)류에 속하는 兵書인 『병장설』 1종(16.7%)이 있고, 문학류(16.7%)와 역사류(16.7%)가 또 각각 1종씩 점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을유자 간행도서는 ①불교류(50%), ②군사류(16.7%), ③문학류(16.7%), ④역사류(16.7%)의 4개의 類에 속하는 도서들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7) 위와 같이, 을유자는 본래 『원각경』을 찍기 위해 주조된 금속활자이기 때문에, 儒臣들 한결같이 글자체가 단정하지 않다고 혹평하면서 싫어하였다(천혜봉(1998), 92.). 이로 인하여 을유자는 20년도 사용되지 못하고, 갑진자 주조의 재료가 되는 悲運을 맞았다. 그러나 을유자는 우리나라 사람(名家)의 글씨체를 바탕으로 주조한 마지막의 獨自의인 金屬活字임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38) 김두중(1980), p.170. 참조.

〈표 6〉 乙酉字(1465) 및 甲辰字(1484) 간행도서

	서명(乙酉字)	간행년	대주제	소주제	비 고
1	大方廣圓覺經修多羅了義經	세조 11년	불교	경전	竝用 한글자(國譯)
2	兵將(圖)設	세조 11년경	군사	兵書	조선-文宗 命編
3	金剛般若波羅蜜經(三家解) 普賢行願品 觀世音菩薩禮文 3부 합편	성종 13년 (1482)	불교	경전-합집(合集)	竝用 한글자(國譯) (동국대 소장)
4	文翰類選大成 153권	성종조	문학	選集	
5	唐書 255권	성종조	역사	중국사-古代	
6	碧巖錄	성종조	불교	제종파-禪宗	
	서명(甲辰字)	간행년	대주제	소주제	비 고
1	王荊公文詩 50권	威宗 16년	문학	중국-詩賦-別集	王安石 詩
2	纂註分類杜詩 25권	威宗 16년	문학	중국-시	
3	東國通鑑 56권	威宗 16년	역사	한국-역사	
4	靑丘風雅 上下 2책	威宗 16년	문학	한국-漢詩-合集	李乘麟 編
5	晉山世藁	威宗 24년	문학	總集類-一般	姜希孟(조선) 등편
6	新編古今事文類聚 2·36권	威宗 24년	總類	중국-類書	富大用(元) 撰
7	須溪先生評點,簡齋詩集 10권	威宗朝	문학	중국-시부-별집	陳與義 著, 劉辰翁 評點
8	私淑齋集 17권	威宗朝	문학	한국-別集類-일반	강희명(조선) 著
9	四桂文集 15권	威宗朝	문학	한국-別集類-일반	서거정(조선) 著
10	史鑑 1권	威宗朝	역사	중국사-史評	晏彥文 著
11	諸家曆象 4권	威宗朝	천문·산법	한국-天文	李純之(朝鮮) 受命編
12	治療方 8권	威宗間	의학	醫方	

셋째, 올해자에서 나타나는 국역도서 및 한국학 관련 주제의 도서 즉, 이른바 우리나라의 주체성을發顯시키는 도서들이 「원각경」과 「병장설」을 비롯하여 무려 6종(진한 글씨의 서명 사항 부분)이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조조의 주체적인 정책이 을유자의 도서간행에서도 그대로 드러남을 의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甲辰字로 간행한 도서 12종의 주제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문학류의 도서가 7종(58.3%)이나 크게 점유하고 있음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가문집」을 비롯한 한국인의 저술이 3종이나 차지함으로써, 문학류 7종 중에서 한국문학이 무려 42.9%를 점유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둘째, 그밖에 갑진자에서는 역사류 2종(16.7%), 總類 1종(8.3%), 천문·산법류 1

중(8.3%), 의학류 1종(8.3%)의 순으로 그 주제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셋째, 갑진자에서는 「동국통감」을 비롯한 한국학 관련 도서가 무려 6종이나 차지함으로써 5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갑인자 이래 우리민족에 관한 저술이 끊이지 않고 주체성 있게 간행되고 있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넷째, 이 갑진자에서는 佛敎類의 도서간행이 全無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불교전적을 간행하기 위하여 주도되었던 을유자에 대한 儒臣들의 反感과 세조의 죽음 이후 <간경도감>의 폐지 및 '척불숭유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분석된다.³⁹⁾

7. 朝鮮時代 書籍의 刊行 및 流布

일반적으로, '고려·조선 시대를 비롯한 금속활자 인쇄도서는 多種少量의 도서를 생산한 것이 그 특징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⁴⁰⁾ 즉, 금속활자 인쇄술은 많은 부수를 찍는데 쓰이기보다는 적은 부수의 귀한 책을 찍는데 쓰였다는 주장이다.⁴¹⁾ 실제로 목판인쇄나 筆寫는 시간과 경비의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욱이 인구가 많은 중국과 달리 책의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는 고려(조선)의 경우에는 대량생산에 적합한 목판보다는 多種少量 생산에 적합한 금속활자인쇄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은 금속활자 출현의 배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술사적인 측면과 아울러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회문화적 조건이 아닌가 한다.⁴²⁾

그렇다면 왜 금속활자는 少量多種의 전적들을 印刷하는데 그쳤을까?

39) 成宗조의 佛書의 간행은 大妃들에 의하여 陰性的으로 간행되었음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은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자, 대비들이 임금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陽性的으로 圓覺寺에서 대내적으로 불경을 간행해 내는 것에 의하여 짐작될 수 있다.

40) 그러나 때로는 금속활자 인쇄도서도 300부씩 인쇄한 사례도 있다.

41) 남권희 등편, 「直指와 金屬活字의 발자취」(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p.549.

42) 한영우, "한국 금속활자인쇄술 발달의 사회 역사적 배경",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1997년 9월 29일-30일(연세-세브란스 빌딩 개최), p.55.

실제로 조선시대 초기인 癸未字의 印出에서는 활자의 뒷면을 뽕족하게 하여 組版하는 판면 위에 밀랍을 녹여 깔고 여기에 금속활자를 심는 방법으로 조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판면의 계선과 植字된 활자 사이의 간격으로 말미암아, 그 印出은 하루에 數面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경자자의 改鑄에 관하여, 「세종실록」 세종 3년(辛丑; 1421) 3월 24일(丙戌)에서 기술하기를,

鑄字所에 술(酒) 120병을 하사(賜) 하다 종래에는 책을 인쇄하는데 글자를 銅板에 벌여 놓고 黃蠟을 끓여 부어, 단단히 굳은 뒤에 이를 찍었기 때문에, 밀랍(蠟)이 많이 들고, 하루에 찍어내는 것이 두어 장에 불과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전하께서 친히 지휘하여 공조 참판 이천과 전 소윤 남급으로 하여금 동판을 다시 주조하여 글자의 모양과 꼭 맞게 만들었더니, 밀랍(黃蠟)을 녹여 붓지 않고도 글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楷正하여, 하루에 數十紙를 인쇄할 수 있었다 전하께서는 그들의 일하는 수고를 생각하여 자주 술과 고기를 하사하시고, 「資治通鑑綱目」을 인쇄하라고 명령하시고, 集賢殿으로 하여금 그 잘못된 곳을 교정하게 하였는데, 경자년(1420) 겨울부터 임인년(1422) 겨울에 이르러 임무를 완료하였다.⁴³⁾

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실제로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금속활자의 인쇄는 그 組版의 방법이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속활자의 인쇄는 그 印出部數가 少量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금속활자 인쇄방법으로는 소량의 인쇄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금속활자인쇄의 기능적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한 「大典後續錄」⁴⁴⁾의 記事가 있다. 즉,

43) ① 「세종실록」 3년(辛丑) 3월 24일(丙戌)條.

② 천혜봉(1990), p.230.

44) 「대전후속록」은 「대전속록(大典續錄)」의 시행 후 1542년(중종 37)까지 약 50년간의 현행법령을 수집·편찬한 6권 1책의 법령집이다. 무릇 법령이란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규정 등이 고착화되어 법제화 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15세기말 16세기초에 법령에 의거하여 그 이전(以前)의 사정(事情)을 추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書冊을 印出할 때에 監印官 監校官 唱準 守藏 均字匠은 매 一卷에 한 자(一字)의 착오가 있으면 30대의 매(불가; 笞)⁴⁵⁾를 맞고, 한 자가 더 틀릴 때마다 한 등급 더 加重되는 벌을 받았다. 인출장은 한 권(一卷)에 한 자(一字)가 먹이 진하거나 희미(稀微)한 자가 있으면 30대의 매(笞)를 맞고 한 자가 더 틀릴 때마다 한 등급 더 가중되는 벌을 받았다. 이른바 틀린 글자의 수를 계산하여 벌을 받았다. 官員의 경우에는 5자(字) 이상 틀리면 罷職(罷黜)되고, 창준 이하의 장인들은 벌을 받은(論罪) 이후에 '소임(任; 품삯)의 절반(五十)을 삭감(削減: 削)당하였으며'⁴⁶⁾ 아울러 그 이전의 죄(前過)도 사면되지 않았다(竝勿揀赦前).⁴⁷⁾

라 하였다. 즉, 서책을 인출하는데 있어서 官員이나 匠人들이 誤字를 植字하거나 印出을 잘못하였을 때마다 불기에 매를 심하게 맞는 형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식자에서 다섯 자(五字) 이상 착오를 저지르는 등 그 죄과가 클 때에 官원은 罷職당하고 장인은 賃金(任)을 削減당하였으며, 또한 그 이전의 죄(前過)가 累積되는 아주 가혹한 형벌을 받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이 嚴正한 법령을 실행하여 금속활자 인쇄(印出)에 임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속활자의 印出에 있어서 그 誤·脫字가 없는 이른바 正本(an original text)의 생산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官衙에서 刊印한 금속활자 인쇄도서는

45) 이것은 이른바 '笞刑'이라 할 수 있다. 태형은 五刑 중의 하나로, 대나무 채찍(竹鞭)으로 죄인의 불기를 치는 형벌을 의미한다. 오형은 중국 수(隋)나라 때의 형벌을 가하는 방법으로, ①태형(笞刑), ②장형(杖刑), ③도형(徒刑), ④유형(流刑), ⑤사형(死刑)이라는 5단계의 刑罰이 있었으며, 후세에는 이를 따랐다' 하였다. 따라서 이 형벌은 우리의 상식으로 잘 알려진 곤장(棍杖)으로 불기를 맞는 형벌보다 한 단계 아래, 즉 형벌 중 그 첫 번째의 징벌(懲罰)이라고 볼 수 있다.

46) 파음표(‘ ’) 속의 내용 번역에 있어서, 다음 각주(脚註)의 본문에 보면, '削任五十'이라 하였다. 장인(匠人)에게 불기를 치는 죄를 물은 다음에 가중(加重)될 수 있는 형벌이란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임(任)'은 소임(所任)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소임에 해당하는 품삯(賃金)을 일백(一百)으로 볼 때 그 절반인 오십(五十)을 깎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47) 『大典後續錄』 禮典, 雜令.

“書冊印出時 監印官 監校官 唱準 守藏 均字匠 每一卷一字誤錯者 笞三十 每一字加一等 印出匠 每一卷一字 或濃墨或熹微者 笞三十每一字加一等 竝計字數治罪 官員五字以上罷黜 唱準以下匠人論罪 後 削任五十 竝勿揀赦前 ”

오·탈자가 없는 正本을 간행함'으로써,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疏通에 萬全을 기하였다는 점이 바로 그 主要機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대량의 서적인쇄는 어떻게 충당하였을까?

이에 관한 기사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면, 端宗 원년(1453) 6월 5일(庚寅) 條에,

허후가 주자본 「左傳」 1부를 바치니 僧徒와 한가한 사람들(閑人)을 모집하여 간행하게 하다. 처음에 左參贊 허후가 鑄字本 「左傳」 1部를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 책은 글자가 커서 읽기 보기에 편할 것이니, 청컨대 集賢殿으로 하여금 校正하도록 하여, 全羅道에 보내어 板刻을 간행하게 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錦山 郡事 권기(權技)가 이미 版木을 준비하였습니다.”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觀察使 金連枝에게 諭示하기를, “僧徒와 閑人들을 모집하여 처음으로 간행하게 하되, 절대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또 수시로 인쇄하여 바치라.”⁴⁸⁾

라 하였다. 위의 인용문의 내용으로 보아, 조선시대 中央 官衙에서 간행된 금속활자본이 각 지방의 監營으로 배포되고, 그렇게 배포된 금속활자본은 어떤 지방의 감영에서 대표적으로 그 전적을 목판(木板)으로 復刻하여 大量으로 인쇄한 후, 인쇄된 도서를 중앙 행정관서에 올려 보내어 이를 전국에 배포하거나, 또는 각 감영에서 각각 복각·인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계미자서부터 갑진자에 이르기까지 조선 건국초기 100년(1392-1492) 동안 서울지역을 비롯한 경상·전라·충청·강원·제주 등의 각 도(道)에서 수많은 전적들이 목판인쇄로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서적간행의 정책은, 먼저 중앙 정부에서 필요한 多種의 典籍을 金屬活字로 少量의 正本을 인쇄한 후, 이들 전적들을 각 지방의 감영으로 배포하면, 각 지방의 감영에서 이 금속활자본을 母本으로

48) 「端宗實錄」 元年. 6月 5日(庚寅) 條

하여 木板印刷로 다시 복각하여 전국 또는 해당 各道에 배포하는 방법에 준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朝鮮初期 각 활자 印本 復刻板의 간행도서

	書名(癸未字)	復刻年月	復刻場所	備 考
1	禮記殘見錄	端宗2년(甲戌)	제주도	연세대학교도서관
2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단종2년	전라도 鎭山郡	국립도서관
	서명(庚子字)	복각년월	복각장소	비 고
1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古賦	단종2년 甲戌	경상도 密陽府	청분실서목
2	楚辭後語, 辨證	단종2년 甲戌	경상도 밀양부	청분실서목
3	莊子虞齊口義, 慎齋壯者十論	성종5년 甲午	경상도 慶州付	국립도서관
4	列子虞齊口義	성종5년	(강원도) 厚州	규장각, 계명대학교서관
5	五朝名臣言行錄	연산군2년	경상도 淸道郡	청분실서목
6	小學大文吐	미상	미상	청분실서목
7	孝經大義	미상	미상	국립도서관 一山文庫
	서명(甲寅字)	복각년월	복각장소	비 고
1	妙法蓮華經	成宗24년	未詳	성종2년판
2	大學章句或問	成宗朝	미상	청분실서목
3	三韓詩龜鑑	成宗朝	전라도 順天府	日本 國會 上野圖書館
4	歷代世年歌	燕山朝	미상	청분실서목
5	東國世年歌	燕山朝	미상	청분실서목
6	陣法	燕山朝	미상	청분실서목
7	近思錄集解	中宗14년	미상	국립도서관
8	大東起信論疏	中宗23년	神隱山 身安寺	동국대 도서관
9	東國通鑑	中宗朝	미상	소수서원
10	新編音注 柱理群書句解	中宗朝	미상	국립도서관
11	分類東坡詩	中宗朝	미상	국립도서관
12	心經附註	中宗朝	미상	국립도서관
13	求仁錄	中宗朝	미상	日本 蓬左文庫
14	精選唐宋十家聯珠詩格	中宗朝	미상	국립도서관
15	資治通鑑綱目	宣祖7년	충청도 永同郡	연세대 도서관
16	經國大全	宣祖朝	미상	서울대 도서관
17	國朝寶鑑	宣祖朝	미상	서울대 도서관
18	十九史略通攷	宣祖朝	미상	陶山書院
19	古文眞寶大全	宣祖朝	미상	도산서원
20	諸家註柳先生集	宣祖朝	미상	일본 內閣官房
21	錢禮	宣祖朝	미상	도산서원
	서명(庚午字)	복각년월	복각장소	비 고
1	詳說古文眞寶大全	成宗 3년	경상도 咸陽郡	玉山書院
	서명(乙亥字)	복각년월	복각장소	비 고
1	教爲簡易方	成宗20년	各道	청분실서목
2	東文選	中宗, 明宗間	未詳	국립도서관 일산문고
3	大典後續錄	中宗, 明宗間	미상	청분실서목
4	增修附記 資治通鑑節要續編	中宗, 明宗間	미상	도산서원
5	唐詩正音輯註	明宗 11년	미상	일본 宮內省 陸書部
6	靈驗略抄	明宗朝	미상	동국대 도서관
7	欽定廣文	明宗朝	미상	청분실서목
8	小學集說懸吐	明宗, 宣祖間	미상	청분실서목
9	高麗史	未詳	미상	서울대 도서관
10	國朝五禮義	未詳	미상	備松文庫
11	帝王歷年記	未詳	미상	청분실서목
12	攷事機要	宣祖9년	서울 水標橋北邊	청분실서목
13	李商隱詩集	宣祖朝	미상	청분실서목
14	國朝儒先錄	宣祖朝	미상	국립도서관 일산문고
	서명(甲辰字)	복각년월	복각장소	비 고
1	增廣太平惠民和劑局方 指南總論	未詳	미상	청분실서목
2	新刊補註譯文 黃帝內經素問	未詳	미상	청분실서목
3	晉山世 藥	未詳	미상	청분실서목
4	四佳文集	未詳	미상	청분실서목

8. 결 론

이상의 연구에서 그 연구의 制限된 期間으로 인하여, 본 논문에서는 朝鮮이라는 國家의 體制가 構築・整備되는 期間이라 볼 수 있는 建國初期 100년 (1392-1492) 동안에 간행된 금속활자 인쇄본에 局限하여 그 간행도서의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직지』와 금속활자의 가치와 중요성'을 도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본론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수합・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癸未字(1403)는 국가(王朝)에 의하여 公金(內帑金)으로 주조된 官鑄活字이기 때문에 營利性을 크게 띠지 않으며, 계미자 간행도서 14종은 모두 중국의 목판인쇄도서를 수입한 것이며, 이를 신속하게 금속활자로 간행하면서 崇儒右文정책에 근거하여 國家經營을 위하여 당시 儒家政治의 理念에 관한 이른바 '新知識의 보급 및 확산'이라는 관점(觀點)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교(28.6%)・역사(35.7%)・문학(14.3%)・법학(7.1%)・지리(7.1%) 등 5개 類에 속하는 전적들을 골고루 간행하여 정치에 참조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 계미자 주조에 의한 도서의 간행은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견인차(牽引車)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庚子字(1420) 간행도서 36종은 ①유교(19.4%), ②역사(30.6%), ③문학류(22.2%), ④어학(외교; 8.3%), ⑤의학(8.3%), ⑥道家(8.3%), ⑦軍事(2.8%) 類 등 그 주제가 7개의 類로 확대된 典籍들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도서는 계미자보다 더욱 다양한 소주제의 도서들을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世宗부터 중앙정부는 정치를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인재의 등용을 위한 科擧制度에 따른 敎育書로서의 儒學・文學・歷史類'을 비롯하여 '민생의 安慰를 위한 의학・국방(군사)・외교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간행을 추진하기 시작함으로써, 경자자 간행도서들은 政治의 安定과 民生의 안위에 크게 寄與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미자와 경자자 간행도서는 儒家政治의 실현을 위하여 그 理念에 관한 이른바 '新知識의 보급 및 확산'이라는 점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甲寅字 간행도서 72종에서는 ①유교, ②문학, ③역사, ④음악(역사-음악),

⑤천문·산법, ⑥어학, ⑦불교, ⑧國譯佛書(불교-한글), ⑨의학, ⑩정치·행정 ⑪지리, ⑫국방(군사), ⑬외교-문학, ⑭법학 등 그 주제가 무려 14개 類 이상이나 되는 다양한 각종 주제의 도서들이 더욱 多種으로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갑인자 간행도서에서부터 우리나라와 관련한 이른바 한국학 도서가 간행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 갑인자 간행도서에 이르러서 비로소 主體性이 發顯된 조선시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및 과학기술(천문·산법 등) 全般에 걸쳐 국가의 基盤(인프라)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류의 간행은 세종시대(1444년)부터 曆法과 과학기기(해시계·물시계·측우기 등) 및 과학기술의 발명·발전으로 인하여 국민의 主業인 農業이나 민중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民生의 安定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세종부터의 한글창제와 관련하여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등은 한글 사용의 용례를 정착·보급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庚午字부터 乙酉字에 이르기까지 금속활자의 주조를 위한 글자본(母本) 또한 주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저명한 서예가들이 쓴 글씨를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主體性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庚午字 간행도서 3종 및 乙亥字 간행도서 44종에서는 우리의 역사·문학·地誌·의학·법률·典禮 등 문화 전반에 걸친 한국학 관련 도서들을 간행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정립에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을해자 간행도서에서는 조선이라는 국가경영의 합리성을 꾀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을 비롯한 정치·행정(법률)류와 지리류·의학류·군사류 등 다양한 주제의 전적이 간행됨으로써, 조선건국의 벽두에서 中國史에서 정치의 모범과 사례를 찾던 경향에서부터, 세조 이후 다양한 주제의 전적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치·행정에 관련 정보를 직접 도입·실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을해자 간행도서의 최대 특징은, 국역본(諺解) 및 한국학 관련서적들이 대거 간행됨으로써, 이른바 한글의 창제에 의한 文盲의 打破 및 민생의 안정과 주체성의 발로'문제를 더욱 확산·정착시켰다는 점에서 韓國文化史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즉, 문맹의 타파는 곧바로 국가 및 개인 정보의 유통으로 연결됨으로써, 한글도서(國譯本)의 간행

은 이러한 정보유통의 기반(인프라)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국역불서의 간행은 왕실과 사대부의 부녀자 및 일반 민중들의 民心安定을 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은 看過해서는 아니 되는 중요사항이라 하겠다.

다섯째, 위와 같은 갑인자 및 을해자 간행도서의 특징은 乙酉字 및 甲辰字 간행 도서에 그대로 傳承되어 나타남으로써, 주체성이 있는 국가경영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섯째, 위와 같은 조선건국 후 100년 동안의 서적정책을 살펴본 결과, 먼저 중앙 정부에서 필요한 多種의 典籍을 金屬活字로 少量의 正本을 인쇄한 후, 이들 전적들을 각 지방의 監營으로 배포하면, 각 지방의 감영에서 이 금속활자본을 모본(母本)으로 하여 목판인쇄로 다시 복각하여 전국 또는 해당 各道에 配布하는 방법에 준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朝鮮初期 金屬活字 印刷은,

- 1) 중앙정부에서는 癸未字 및 庚子字를 주조하여 多種・少量의 正本을 金屬活字로 迅速하게 조판・인쇄함으로써 정확한 原文情報가 담긴 인쇄도서인 正本을 최단 시일 이내에 전국에 유포시켰다. 따라서 계미자・경자자 간행도서는, 朝鮮이라는 국가체제의 변동과 더불어 그 건국의 이념인 儒敎政治의 실현을 위한 新知識의 보급과 확산이라는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도서의 간행은 太宗朝부터 世宗朝에 인재의 등용을 위한 科擧制度에 따른 敎育書로서의 儒學・文學・歷史類를 비롯하여 民生の 安慰를 위한 의학・국방・외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간행함으로써, 建國初期의 정치적 안정과 민생의 안위에 크게 기여하였다.
- 2) ① 世宗이 한글을 創製한 이후, 특히 甲寅字・乙亥字・乙酉字에 의한 금속활자 인쇄는 한글 사용의 用例를 명확하게 하여 줌으로써 한글의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다.
- ② 특히 世祖 이후 국역불서 및 한글도시가 부가된 불서 그리고 각종 주제의 국역본의 간행은 일반 국민들의 文盲打破라는 혁명적 變化를 불러 일으켰으며, 문맹타과는 곧바로 국가 및 개인 情報의 流通으로 연결됨으로써, 한글도

서(國譯書)의 간행은 개인 및 국가 정보유통의 基盤(인프라)을 構築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글도서의 간행과 보급은 왕실과 사대부 계층의 婦女子 및 一般國民들의 佛敎信行 行態變化에 크게 영향을 줌으로써 民心의 安定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3) 朝鮮初期의 서적인쇄정책에 입각하여, 전국의 주요 관아에 보급된 금속활자 인쇄본 중 대량의 인쇄가 필요한 전적은 각 지방에서 다량으로 목판인쇄되어 보급되었다. 이로써 송유우문정책에 근거한 인재의 등용 등을 위한 유교서적 및 법전 등이 인쇄·배포됨으로써,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과거제도가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4) 금속활자 인쇄에 의한 의학·천문산법·지리 류 등 각종 주제의 도서인쇄 및 유포는 민중의 일상생활 및 농업 등 생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아울러 국가경제 및 일반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民生의 安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朝鮮初期의 금속활자 인쇄문화는, ‘조선’이라는 왕조의 건국에 따른 유가정치와 관련한 도서를 간행함으로써 즉 新知識의 보급과 확산을 꾀함으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다양한 금속활자 인쇄도서의 간행은 조선 건국의 기틀(functioning) 및 국가적인 정보유통의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데 그 기능을 완수함과 동시에 ‘500년 조선왕조’의 주춧돌과 기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종 이후 금속활자 인쇄도서는 한글의 사용 용례를 啓導하여 한글의 전파와 이를 사용하는 일반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민생의 고통 및 문맹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情報疏通(communication)을 圓滑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결국, 『직지』에서 비롯되어 조선초기에 발전된 금속활자 인쇄문화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주체성 있는 文化國家로 성장시키는데 原動力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導出할 수 있다.

<參考文獻>

- 『經國大典』卷3, '禮典 諸科 陰陽科 初試覆試 講書條.
權近, 『鑄字跋』, 『陽村集』卷22.
『世宗實錄』, 3年(辛丑) 3月 24日(丙戌)條.
_____. 16年 7月 丁丑條.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1980.
김민환. 『동아시아에서의 근대신문 지체요인』. 서울: 나남출판, 1999.
남권희. 『麗末鮮初의 出版文化史 一 考察, - 金秉九 所藏資料를 中心으로 -, 『古印刷文化』 제7집 (2000). pp.141-143.
_____.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研究의 成果와 課題』 『제3회 청주국제인쇄출판학술회의』.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pp.131-142.
남권희 등편. 『直指와 金屬活字의 발자취』.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남윤성 PD. 청주MBC 창사25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직지(直指)』 (1995. 10. 23. 오후 7:25~8:20, 방송).
_____. “청주MBC <월요기획> 국보 1호급 『직지』 국내에 있는가”. (1996. 12. 23. 오후 7:25~8:20, 방송).
_____. “청주MBC 창사29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직지를 찾습니다>”. (1999. 10. 23. 오후 7:25~8:20, 방송).
_____. “청주MBC 신년특별기획 생방송 <인류문화유산 직지를 찾습니다>”. (2000. 1. 7. 오후 21:55 ~23:05, 방송).
_____. “청주MBC 창사3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 ○제1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 (2000. 9. 22. 오후 9:55~10:50, 방송). ○제2부: 금속활자 발명국 한국인가, 중국인가. (2000. 9. 29. 오후 9:55~10:50, 방송). ○제3부: 한국의 금속활자 세계로 가다. (2000. 10. 6. 오후 9:55~10:50, 방송).
_____. “청주MBC 창사33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

- 류를 찾아서> 2부작”. ○제1부: “구텐베르그는 발명가인가?”. ○제2부: “활자로는 없는가?”. (2003. 12. 26. 오후 9:55 ~00:05. 방송).
- 박문열, 「백운화상과 불조직지심체요절」, 『인쇄문화 국제포럼』, 청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997. pp.119-145.
- 손보기, 『새판 한국의 고활자』, 서울: 보진재, 1982.
- _____, 「韓國의 金屬活字印刷」, 『世界속의 韓國印刷出版文化 論文集』 第1回 國際印刷出版文化 學術會議, 淸州: 淸州市, 1995. pp.7-20.
- _____,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 발명: 인류문화발전에서의 역할과 영향」,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청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996. pp.7-23.
- 윤병태, 「금속활자 발명의 의의」, 『인쇄문화 국제포럼』 청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997. pp.95-107.
- 윤상기, 「庚子字와 그 印本」, 『古印刷文化』 제10집(2003).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pp.59-90.
- 이어령, 「인쇄욕망의 근원에 있는 것 -인쇄문화의 東과 西-」, 『제3회 청주국제인쇄 출판학술회의』,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pp.1-14.
-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 _____, 「興德寺字本 『直指心體』의 印刷文化史的 意義」, 『世界속의 韓國印刷出版文化 論文集』, 第1回 國際印刷出版文化 學術會議, 淸州: 淸州市, 1995. pp.39-50.
- _____,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달과정」,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청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996. pp.63-86.
- _____,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8.
- _____,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金屬活字 印刷術, 『제3회 청주국제인쇄 출판학술회의』,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pp.15-24.
- _____, 「癸未字와 그 印本, - 宋朝表牋總類의 해설을 곁들여 - 」, 『古印刷文化』 제10집(2003).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pp.91-101.
- 한영우, 「한국 금속활자 인쇄발달의 사회역사적 배경」,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청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996. pp.51-59.

КСІ